

# 한글맞춤법의 역사적 변천

‘훈민정음’에서 現代까지(上)

李翊燮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국어학

「훈민정음」의 창제에서

19세기말까지의 우리 맞춤법을 보면,

흔히 생각하듯 완전한 무정부상태의

혼란스러운 맞춤법은 아니었다.

우리 맞춤법은 그 출발부터

꽤 整齊된 모습을 갖추었고,

그 후에도 한 시대 한 시대를 지배하던

꽤 통일된 맞춤법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맞춤법은

개화기에 국문연구소가 마련한 案이었다.

비록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500년 동안 지켜져 온 전통을 깨는,

우리 맞춤법의 기본성격을 크게

전환시키는 매우 개혁적인 것이었다.



반포동 자택 서재에서의 李翊燮 교수

1989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새 「한글 맞춤법」이 공포되어 머지않아 새 맞춤법 시대를 맞게 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새 맞춤법은 애초의 試圖와는 달리 그 前身인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내용을 되도록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한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은 뜻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맞춤법이 그동안 어떠한 변모를 겪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일도 새 맞춤법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訓民正音」의 맞춤법 규정

한글은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는 일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문자다. 대부분의 문자가 그런 것과는 달리 남의 문자를 오랜 세월을 걸쳐 조금씩 조금씩 변모시켜 만든 글자가 아니다. 그 때문에 이 새 문자를 공포할 때에는 맞춤법도 함께 정하여 발표하여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訓民正音」에는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규정은 ‘ㄱ-ㄴ’이나 ‘ㄷ-ㄹ’처럼 풀어쓰기를 하지 말고 모아쓰기를 하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은 初聲, 즉 자음의 오른쪽에 쓰고 ‘ㅡ, ㅓ, ㅕ, ㅗ, ㅛ, ㅜ, ㅠ’ 등은 初聲의 아래쪽에 써서 ‘글’과 ‘책’처럼 쓰라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은 오늘날 까지도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최초의 한글 맞춤법 규정이며 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었다.

이른바 8終聲法에 대한 규정, 즉 받침에 ㄱ,

ㅇ, ㄷ, ㄴ, ㅂ, ㅁ, ㅌ, ㄹ 여덟 글자만 써도 좋다는 규정도 「訓民正音」에 明文화된 규정이었다. 이 규정도 상당히 후기까지 잘 지켜져서 받침에 ‘스, 스, ㅋ, ㅌ, ㅍ’ 등의 글자가 쓰이는 일은 19세기말까지 허용되지 않았다.

어느 한 시기에 새 문자를 공포하면서 맞춤법 규정까지 함께 공포한 예는 한글의 경우 말고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맞춤법은 그 출발부터 꽤 整齊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訓民正音」에서의 맞춤법 규정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맞춤법에 대한 규정이 明文으로 나타난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아쓰기 체계를 채택할 경우 당연히 대두되는 이른바 連綴와 分綴의 문제, 다시 말하면 ‘모물’로 표기할 것인가 ‘뭍’으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어느 곳에서도 규정해 놓지 않았다. 그 결과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문헌에서부터 두가지 표기방식이 혼용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月印千江之曲」은 기본적으로 ‘뭍’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고, 나머지 문헌들은 ‘모물’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물론 두 방식 중 곧 ‘모물’과 같은 連綴 방식으로 통일되고 그 전통은 16세기초까지 잘 지켜졌다.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기관에선가 이 표기법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여 內規로 정하고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은 구속력이 그만큼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발적이지만 「楞嚴經諺解」 「南明集諺解」 등 15세기

문헌에서조차 분철 표기가 나타나고 「小學諺解」 등 16세기 하반기의 문헌에서부터는 ‘일 흠이라, 겨집은, 냇번의’ 등 體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넘으리라, 잡았거든, 곧으며, 넘으리’ 등 用言에서도 분철 표기가 매우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 각 시대마다 그 나름의 맞춤법 있어

물론 19세기말까지의 우리 맞춤법을 보면 흔히 생각하듯 완전한 무정부상태의 혼란스러운 맞춤법은 아니었다. 적어도 한 시대 한 시대를 지배하던 꽤 통일된 맞춤법이 있었다. 가령 앞에서 본 연철과 분철을 예로 보아도 15세기 문헌은 연철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반해, 16세기 후반 이후 19세기말까지의 문헌은 비록 지금보다는 제약된 환경에서이지만 분철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무엇이 이러한 통계를 가능하게 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쨌든 어느 시대에도 그 시대 특유의 꽤 통일된 맞춤법이 있었던 것만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통일된 상태라는 뜻이지, 당시의 맞춤법이 만족할 만큼 통일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맞춤법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明文도 없었고 또 그럴 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귀결이기는 하겠으나, 우리 맞춤법은 국가 차원의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까지 긴 세월 동안 자유방임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달리하면 당시의 맞춤법은 이런 표기는 맞고 저런 표기는 틀린다는 규정이 없는 맞춤법이었다는 뜻이다. 가령 17세기의 문헌이라면 ‘뭍을, 잡아서’로 표기하는 것이 당시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만, 만일 어느 누가 그것을 ‘모물, 자바서’라고 표기한다고 하여 그것은 맞춤법에 틀렸으니 고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시대에도 예외적인 표기방식을 보이는 문헌들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불합리한 맞춤법이 등장하여 세력을 얻어도 규제할 방도가 없었다. 한 예로 받침에서의 ‘ㅌ’와 ‘ㄷ’의 표기를 들 수 있다. 앞에서 8중성법은 상당히 후기까지 잘 지켜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받침에 ‘스, 스, ㅋ, ㅌ, ㅍ’ 등의 자음을 쓰지 않았던 점에서는 잘 지켜진 편이지만 받침 ‘ㅌ’와 ‘ㄷ’은 16세기 후반

부터 혼란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혼란은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즉 처음에는 ‘음듬’과 ‘웃듬’, ‘듣고’와 ‘덧고’류의 혼란을 보이다가 17세기 후기의 「朴通事諺解」에서부터는 받침에서 ‘ㄷ’은 자취를 감추고 ‘ㅅ’만 남아 말하자면 7終聲法の 맞춤법이 되었으며, 그 결과 18세기 후기의 문헌에는 ‘미들지라, 구드니’나 ‘믿을지라, 굳으니’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밋을지라, 굿으니’로 표기하는 이상한 맞춤법이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맞춤법을 통제할 방도가 없었다. 그럴 기구도 없었고, 그럴 규정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맞춤법이 문명국의 맞춤법 모습일 수 없음을 너무도 자명하다. 출판물이 많지 않고 독서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맞춤법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대에는 비교적 통일된 모습으로 쓰였던 맞춤법이 있었으므로 우리 선조들이 맞춤법의 불통일로 겪었던 불편은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가 서고 교과서를 만들고 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오면 통일되고 정제된 맞춤법은 필수품이 아닐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자유방임적이던 우리 맞춤법은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햇빛 못본 최초의 맞춤법통일안

국가 차원에서 맞춤법의 통일작업이 착수된 것은 開化期에 가서였다. 1907년 學部 안에 설치된 國文研究所에서 8인의 연구위원들의 연구와 토의 끝에 마련한 「國文研究所議定案」(1909년)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맞춤법 통일안이었다. 그 통일안에는 당시까지 통용되어 오던 ‘·’자음, 비록 발음은 ‘ㅌ’로 읽혀 그 고유 음가를 잃었지만 계속 살려 쓴다는가, 된소리를 당시까지 쓰이던 ‘ㅅ, ㅆ, ㅈ’을 버리고 대신 ‘ㅍ, ㅊ, ㅃ’으로 쓴다는 등의 字母 자체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비교적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받침에 ‘ㄷ, ㅅ, ㅈ, ㅋ, ㅌ, ㅍ, ㅎ’을 쓰도록 한 것이었다. 8종성법의 규정 이래 제재를 받아 왔던 받침들, 그리고 18세기에 받침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ㄷ’을 모두 살리자고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오늘날 우리가 쓰

고 있는 맞춤법에 그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앞시대의 맞춤법과 관련하여 구획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거의 500년 동안 지켜져 온 전통을 깨는, 우리 맞춤법의 큰 줄기를 바꾸고 그 기본적인 성격마저 바꾸는 자못 개혁적인 규정이었다.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었다는 뜻은 이러하다. 받침은 8개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맞춤법을 表音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규정이다. 기본형이 ‘앞’이더라도 ‘앞자리, 앞도’와 같은 위치에서는 받침 ‘ㅍ’이 ‘ㅂ’으로 발음되므로 그 발음에 충실하게 ‘압자리, 압도’로 표기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발음은 어떻든 그 기본형이 ‘앞’이면 그 ‘ㅍ’이 어떤 자리에 있던 ‘앞자리, 앞도’로 표기하여 본래의 모습을 살리자, 그러려니 받침에 ‘ㄷ, ㅋ, ㅌ’ 등도 써야 한다는 것이 받침에서의 제약을 없애자는 측의 입장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충실한 발음의 반영보다는 고정된 형태를 살리자는 表意主義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만큼 國文研究所의 案은 우리 맞춤법의 기본 성격을 크게 전환시키는 매우 개혁적인 입장의 표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國文研究所의 맞춤법은 시행을 보지 못하였다.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의 悲運을 맞음으로써 이 맞춤법도 함께 死藏의 비운을 맞았던 것이다. 그로써 통일된 맞춤법에 의해 문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 조선총독부 제정의 ‘諺文綴字法’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통일된 맞춤법을 갖게 된 것은 1933년 11월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포됨으로써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930년 2월에 거의 비슷한 맞춤법 통일안이 「諺文綴字法」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되었고, 또 조선총독부 간행의 당시 교과서에 적용되었다. 이 「諺文綴字法」은 비록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것이지만 이 맞춤법 제정에 참여하였던 국어학자 대부분이 「한글맞춤법통일안」 작업에 그대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 흡사한 것이 많아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거론하면서 「언문綴字法」을 언급하지 않기는 어렵다. 즉 「언문綴字法」 제정에는 小倉進平, 高橋亨 등 소수의 일본인 학자도 참여하였지만 장지영, 이완응, 이세정, 권덕규, 정열모, 최현배, 신명균,

심익린 등 당시의 대표적 국어학자였고 나중에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때에도 主役을 담당하였던 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제될 내용을 이미 「언문綴字法」에 쏟아 넣었던 것이다.

(가) 받침은 ‘ㄷ, ㅌ, ㅅ, ㅈ, ㅍ, ㅊ, ㅃ, ㅋ, ㅌ, ㅍ, ㅎ’을 더 씀, (나) 어간과 어미, 체인과 토는 구분하여 적음, (다) 변칙용언은 발음대로 씀, (라) 原辭가 분명한 것은 되도록 밝혀 적음(웃음, 깊이…), 뜻이 변한 것은 발음대로 적음(이름, 무덤, 마개…) 등의 「언문綴字法」 규정을 보면, 비록 받침에 ‘ㅎ’이 빠져 있는 등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기본 골격이 이미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학계 일부에서는 우리 맞춤법의 변천을 다루는 자리에서 「언문綴字法」의 존재에 대해서 굳이 눈을 돌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애초 1912년에 「보통학교용 언문綴字法」을 제정 공포하여 교과서에 적용한 바 있고, 또 1921년에 그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앞의 「諺文綴字法」은 그 두번째 개정안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 앞의 것과 사뭇 다른 방향의 맞춤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즉 앞것들은 대개 19세기말까지 이어져 오던 옛 맞춤법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어쩌면 시대역행적인 맞춤법이었다. 국가에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에 비해 「언문綴字法」은 현행 맞춤법의 뼈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비중을 낮출 수 없는 존재라 할 만하고, 따라서 우리 맞춤법의 역사를 논할 때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맞춤법의 중요한 정신인 表意主義는 그 연원이 1909년의 國文研究所의 맞춤법안에 있으며, 상당한 골격이 1930년의 「諺文綴字法」에서 만들어지고, 그 최종적인 마무리가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들 중의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 이번의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어떤 맞춤법이 理想인가 하는 원리적인 문제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 호에 이어짐)

1930년에 마련된 「언문綴字法」은 비록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것이긴 하지만, 이에는 당시의 대표적인 국어학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행 「맞춤법통일안」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학계 일부에서는 우리 맞춤법의 변천을 다루는 자리에서 「언문綴字法」의 존재에 대해서 굳이 눈을 돌리려는 경향을 보인다.